

제 1 교시

2026학년도 미술랑 모의고사 ★★-4회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눈물 멈추는 법을 몰라요 차디차고 너무 아파요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수능맛집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수능맞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읽을 때에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신이 이전에 읽었던 다른 텍스트들의 경험을 활용한다. 이처럼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을 '상호 텍스트성'이라 한다. 텍스트에 인용이나 암시, 패러디 등의 방식으로 다른 텍스트가 스며들어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작품을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독서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한 독서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독자가 특정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작가가 의도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의미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경우 독자는 작가가 숨겨 놓은 비판이나 풍자의 의미를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여 수용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를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다른 텍스트, 즉 '참조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참조 텍스트의 내용이나 주제가 현재 읽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가령 참조 텍스트의 특정 관점을 비판하는지, 아니면 계승하여 발전시키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읽는 과정에서 참조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읽음으로써 자신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상호 텍스트적 읽기는 단순히 숨은 참조 텍스트를 찾아내는 지식의 확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해석 행위이다. 따라서 상호 텍스트성을 이해하고 이를 독서 과정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텍스트의 숨겨진 맥락을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이다.
- ② 참조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③ 상호 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인 독서 활동이다.
- ④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 텍스트에 암시된 모든 참조 텍스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⑤ 텍스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윗글에서 강조하는 **효과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에 집중하여, 작가가 전달하려는 핵심 주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 ② 자신이 기준에 알던 배경지식만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며 읽는다.
- ③ 텍스트에 인용된 다른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두 텍스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읽는다.
- ④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연결하기보다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보고 그 자체의 형식적 완전성을 분석한다.
- ⑤ 텍스트를 읽기 전에 다양한 비평문을 먼저 읽어,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자신의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이 보인 독서 활동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독서 목적] 현대시가 고전 소설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파악하기

[읽기 자료] (가) 고전 소설 「춘향전」, (나) 「춘향전」을 재해석한 서정주의 현대시 「추천사」

[독서 활동]

- (가)를 읽고, 춘향이 겪는 시련과 이를 극복하는 정절의 중요성을 주제로 파악함.
- (나)를 읽던 중,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라는 구절이 (가)의 인물과 상황을 차용했음을 파악함.
- (나)의 화자가 그네를 타고 날아가려는 '수양버들 나무'나 '아주 내어 밀듯이' 민다는 표현에서, 이별을 거부하고 임에게 도달하려는 초월적 의지를 읽어냄.
- 두 작품을 비교하며, (나)가 (가)의 '정절'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임을 향한 사랑의 의지라는 보편적 가치로 변용했음을 이해함.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가)의 주제를 먼저 파악한 것은 (나)의 재해석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겠군.

② (나)에서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라는 구절을 보고 (가)를 떠올린 것은, '참조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낸 활동으로 볼 수 있겠군.

③ (가)의 '정절'이라는 주제가 (나)에서 '사랑의 의지'로 변용되었음을 파악한 것은, 텍스트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 것이겠군.

④ (나)의 화자가 보이는 '초월적 의지'는 (가)의 춘향이 보인 태도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두 작품의 주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이해한 것이겠군.

⑤ (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다면, (나)의 구절에 담긴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어려웠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실종 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적으로 사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민법 제27조와 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종은 5년 이상 생사가 불명일 경우, 전쟁, 해난, 항공기 추락 등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는 1년만 경과해도 가능하다.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해당 인물은 ‘간주 사망자’로서 법적 사망 상태에 놓이며, 이에 따라 재산 상속, 혼인 관계 해소, 보험금 지급, 각종 행정 절차 정리가 가능해진다.

① 제도의 핵심은 실제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법적 필요에 의해 사망 상태를 법적으로 구성한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종자와 관련된 법적 행위를 무기한 중단시킬 수 없기에, 일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사망 간주’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상속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배우자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행정 당국은 주민등록 정리, 연금 지급 중단 등 후속 조치를 ②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종 선고는 실질적으로는 생존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존재성과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실종자가 나중에 생존한 상태로 돌아올 경우, 그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민법은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속이나 재혼 등의 법적 효과는 원상 복귀가 어렵고, 제3자의 선의 취득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처분했을 경우,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어도 해당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실종 선고는 단순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넘어, ‘존재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포함한다. 법은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로 판정되면 그의 권리와 관계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다. 실종 선고 제도는 이처럼 현실의 불확실성과 법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실종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나)

법체계는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인간을 ‘법적 주체’로 승인하거나 배제한다. 이는 단순한 권리, 의무의 기술적 관리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법의 인식 방식을 드러내는 철학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실종 선고 제도는 이러한 법의 작동 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일정한 시간 동안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 법은 실존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판단은 제도의 안정성과 법의 행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존재를 구성하는 법의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유발한다.

법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전제하지 않는다. 실존은 법적 판단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제도 내에서 권리 주체

로 기능할 수 있다. 실종 선고는 법이 이러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인간 존재를 잠정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종자가 생존한 채로 돌아온 경우, 그는 자신의 실존을 입증하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의 지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은 실종 선고의 취소를 허용하지만, 그 사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태도는 존재라는 개념이 법 안에서 구성되고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법철학자들은 인간이 법적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단순한 실존이 아니라, ‘사회적 승인’과 ‘절차적 인지’라는 점에 주목 한다. 흡스는 법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다고 보았고, 켈렌은 법적 질서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때 자율성과 같은 내재적 속성이 아닌,

[A] 개인을 특정한 ‘행위 능력의 단위’로 환원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종 선고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법적 실체’로 승인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법은 인간 존재를 자연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법률 행위가 가능한 주체로 재정의하며, 실종 선고는 그 재정의의 유보 상태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 작동 방식은 인간의 존재를 법 제도의 틀 속에서 조건화하며, 실존과 권리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종 선고 제도는 특히 그 긴장을 제도적으로 고정시킨 애다. 인간은 존재하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며, 심지어 법적으로는 사망 상태로 전환된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존재에 대한 법의 결정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한다.

결국 실종 선고 제도는 실존이 곧 권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승인되어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이 그 승인 여부를 독점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법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절차 중심적이고 제도 구성적 인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 안에서 개인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고 동시에 소외되는지를 사유하게 한다. 실종 선고는 단지 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서, ‘존재를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사회 안에 끊임없이 제기하는 장치인 것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특정 법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나)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을, (나)는 그 제도가 지닌 법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나)는 철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종 선고’에 접근하고 있다.
- ④ (가)는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나)는 존재에 대한 법의 결정권한이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실종 선고’라는 동일한 제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국어 영역

5. ⑦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물리적 실존보다 사회적 관계의 안정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법이 실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잠정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임을 보여준다.
- ③ 법이 자연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④ 법이 실종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⑤ 법이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의 청구에 따라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6. [A]를 바탕으로 흉스와 켈렌의 입장을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도 살인이나 절도를 비난하는 보편적인 관습이 존재했음이 입증된다면, 법적 질서가 권리 를 규정한다고 본 켈렌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② 인간과 유사한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해, 대부분의 법체 계가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개인을 행위 능력의 단위로 환원하여 권리를 규정한다고 본 켈렌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③ 법이 없는 무인도에서 표류자들이 만든 규칙이 더 강한 힘을 가진 개인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연 상태 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흉스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한 개인이 실종 선고 후 생활했을 때, 그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 기 위해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흉스와 켈렌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한 사회의 법이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성과 무관하게, 외부 정 복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식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흉스와 켈렌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7.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실종 선고가 가족 등의 법률관계를 인정시키려는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볼 때, 이는 (나)에서 법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과 연결되는군.
- ② (나)에서 법이 실존을 제도적으로 승인되어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가)에서 실종자가 생활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속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군.
- ③ (가)에서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실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나)에서 법이 인간 존재를 자연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법률 행위가 가능한 주체로 재정의하는 권한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법이 인간을 법적 주체로 승인하거나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가)의 실종 선고가 실종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거하지만 취소를 통해 그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는군.

- ⑤ (가)에서 법원이 실제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을 간주하는 것과, (나)에서 법이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을 간주하는 것은 모두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법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군.

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해외에서 선박 사고를 당한 갑은 1년 넘게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다. 갑의 배우자인 을은 상속받은 갑의 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하였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그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했다. 이후 을은 정파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2년 후, 갑이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 돌아왔고, 법원에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① 법원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내린 것은, 현실의 불확실성과 법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제도의 작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갑이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실존은 법적 권리를 곧바로 회복시키지 못하며, 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의 지위에서 출발해야 하겠군.
- ③ 을이 갑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병에게 처분한 행위는, 갑의 생활 이후에도 원상 복귀가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군.
- ④ 을이 정파 재혼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갑이 실종 선고 취소를 받으면 갑과 을의 이전 혼인 관계는 자동으로 부활하겠군.
- ⑤ 갑이 겪은 선박 사고는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실종보다 짧은 기간인 1년만 경과해도 실종 선고 청구가 가능했겠군.

9. 문맥상 ①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논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 ②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 ③ 그는 어젯밤 마신 술로 심하게 취했다.
- ④ 여러 방안 중에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을 취하기로 했다.
- 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도청이나 변조를 차단하는 암호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핵심 기반 중 하나다. 특히 통신 보안은 정보가 곧 자산으로 기능하는 사회 구조에서,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은 수학적 난해성을 바탕으로 암호화와 복호화의 비대칭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구조는 암호의

안전성이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해독에 필요한 계산량의 방대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계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다.

양자 암호통신은 기존 암호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이는 암호 키의 안전한 분배를 위해 양자역학의 성질을 활용하는 통신 방식으로, ‘양자 키 분배(QKD)’가 그 핵심 기술이다. QKD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큐비트, 즉 양자 상태를 지닌 단위 정보를 주고받으며 암호 키를 공유한다. 큐비트는 고전적 비트와 달리 0과 1의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한 기저로 측정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큐비트는 관측 시 그 상태가 확정되면서 원래의 중첩이 붕괴되는 성질을 지닌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QKD에서는 암호 해독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저를 활용해 큐비트를 송수신한 뒤, 통신 후 일정 비율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측정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제3자가 중간에서 큐비트를 측정하여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면, 그 측정 행위 자체가 큐비트의 상태를 변경시켜 오류를 유발하게 되고, 송수신자는 비교 절차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키 분배 과정에서 해독이 시도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해당 키를 폐기하고 재전송을 시도함으로써 통신의 보안을 유지한다.

기존의 고전 암호 체계는 암호화된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 기반을 두었다. 예컨대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RSA 암호는 매우 큰 수를 두 소수로 나누는 계산이 현재의 고전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암호의 해독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배제하지 못하며, 단지 그 실행 가능성은 제한할 뿐이다. 반면, 양자 암호통신은 해독 행위 자체를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접근을 취한다. 암호의 복잡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⑦_{측정이 곧 간섭이라는} 양자역학의 근본 성질을 보안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자 암호통신은 암호의 안전성을 수학적 난해성이 아닌 물리 법칙에 기반하여 보장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이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암호 기술이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서, 정보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물리적 조건과 결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암호는 더 이상 정보의 단순한 은닉이 아니라, 정보의 측정과 전달 방식 자체를 다시 ⑧_{구성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비트는 0과 1의 상태가 중첩할 수 없다.
- ②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발전할수록 공개키 암호 방식은 보안성이 떨어진다.
- ③ 양자 암호통신은 정보와 물리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 ④ 고전 컴퓨터는 RSA 해독이 어렵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해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⑤ 기존 암호 체계와 달리 양자 암호통신은 정보 은닉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에 변화를 준 것이다.

11. ⑦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독 시도 행위 자체가 원래의 정보를 훼손하여,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
- ②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 있어, 제3자가 그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리
- ③ 암호 키의 복잡도를 높여, 해독에 필요한 계산량을 늘림으로써 도청을 방지하는 원리
- ④ 큐비트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잡음이 암호 키의 일부를 훼손하여 도청을 무력화하는 원리
- 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기저를 사용함으로써, 제3자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얻을 확률을 낮추는 원리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수능맞집 국어연구소는 새로 개발한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 데이터를 본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여 보관하고자 한다. 연구소는 이전까지 데이터 암호화에 RSA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등장한 고성능 컴퓨터에 의해 암호가 해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본사와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망에 QKD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이를 통해 생성된 암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기로 결정했다.

- ① 연구소가 RSA 방식 대신 QKD를 도입한 것은, 암호의 안전성을 계산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② 만약 제3자가 QKD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암호 키 정보를 해킹하려 한다면, 본사와 데이터 센터는 비교 절차에서 오류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연구소가 QKD를 통해 암호 키를 성공적으로 공유했다면, 제3자는 새로 개발된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키의 내용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 ④ QKD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도, 연구소의 모의고사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기존의 통신망을 통해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연구소가 RSA 방식을 고수하다가 해킹을 당했다면,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의 기저가 계산량이 충분한 컴퓨터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13. ⑧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 ① 조립(組立)하는
- ② 형성(形成)하는
- ③ 배치(配置)하는
- ④ 창작(創作)하는
- ⑤ 조직(組織)하는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놀이라는 행위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습득하며, 상징을 내면화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 하위징아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노는 인간’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언어, 법, 종교, 예술과 같은 문명 요소들이 놀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위징아에 따르면 놀이는 자발적이며 규칙이 있는 행위로, 현실의 삶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놀이는 인간 행위 중 가장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형태이며, 문명의 기원은 경쟁이나 생존이 아니라 ‘놀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문화적 시각은 아동 발달 이론에서도 놀이의 역할을 해석하는 틀과 연결될 수 있다. 피아제는 놀이를 아동의 인지 발달 구조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이라는 인지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기준 틀에 통합하려는 ‘동화’와 기준 틀을 수정하여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려는 ‘조절’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놀이는 주로 ‘동화’ 중심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아동은 놀이를 통해 실제 세계를 자신만의 인지 틀로 재구성하며 해석한다. 초기에는 감각운동적 반복이 중심이 되지만, 점차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상징적으로 다른 ‘상징 놀이’로 발전하고, 이후에는 사회적 규칙을 따르며 타인과 함께하는 ‘규칙 있는 놀이’ 단계에 도달한다.

피아제는 이러한 놀이의 발달 단계를 통해 아동이 어떻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을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한다. 상징 놀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언어와 상상력의 발달로도 이어진다. 규칙 있는 놀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관점과 규칙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동은 점차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피아제에게 놀이는 단순한 재미의 행위가 아니라, 인지 구조의 정교화를 드러내는 심리적 지표였다.

반면, 비고츠키는 놀이를 인지 발달의 결과가 아닌,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보았다. 그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상황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에 따른 규칙을 내면화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실제로는 아직 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고를 놀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아동의 ⑦‘근접 발달 영역(ZPD)’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즉, 놀이 속에서 아동은 현재의 발달 수준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실험하게 된다.

비고츠키는 특히 놀이에서의 ‘자기 조절’ 능력에 주목했다. 아동은 역할 놀이를 할 때,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역할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내면적 규칙을 형성하는 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의사 놀이’를 하는 아동은 실제로는 뛰어 놀고 싶더라도, 의사라는 역할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규칙과 규범의 내면화, 자율성의 발달로 이어진다. 비고츠키에게 놀이는 아동이 사회적 문화를 자기화하는 도구이자, 상상력과 규범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심리적 장치였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위징아는 놀이가 문명 발생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 ② 피아제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 ③ 비고츠키는 놀이를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로 보았다.
- ④ 하위징아는 놀이가 현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 ⑤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모두 놀이가 아동의 인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1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동이 놀이를 통해 현재의 발달 수준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
- ② 아동이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하여 내면화하는 심리적 공간
- ③ 아동이 외부 세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충동에만 집중하는 자율적 상태
- ④ 아동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의 범위
- ⑤ 아동이 놀이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역할과 현실의 역할이 일치하는 지점

16. 윗글의 ‘하위징아’의 관점에서 〈보기〉의 활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모든 부족원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 부족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신성한 체험을 공유했다.

- ① 부족원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이므로, 놀이의 본질적 속성인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②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신성한 체험을 공유하는 것은, 놀이가 문명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 ③ 부족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현실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일상적인 행위이다.
- ④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므로, 현실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놀이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모든 부족원이 참여하는 집단적 활동이므로,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놀이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프랑스의 사회학자 카유아는 놀이를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형태인 ‘파이디아(paidia)’와, 정해진 규칙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중시되는 형태인 ‘루두스(ludus)’로 구분했다. 파이디아는 특별한 규칙 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이며, 루두스는 규칙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통제가 요구되는 놀이이다. 그는 아동의 놀이가 파이디아에서 점차 루두스의 성격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다.

- ① 피아제의 관점에서, 아동이 ‘상징 놀이’에서 ‘규칙 있는 놀이’로 발전하는 것은 놀이가 파이디아에서 루두스로 발전하는 양상과 관련이 깊겠군.
- ②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아동이 ‘역할 놀이’를 하며 역할에 맞는 규칙을 따르는 것은 루두스의 성격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모두,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놀이가 루두스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있겠군.
- ④ 피아제의 관점에서, 아동이 파이디아의 성격이 강한 놀이에 몰두하는 것은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동화’ 중심의 활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루두스와 달리 파이디아는 아동이 현재 발달 수준 확인을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겠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②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꿀나무에는 꿀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A]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전조한 가을길에 가쁜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짙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빨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B]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꿀나무에는 꿀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한 나의 신발.

[C]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빨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①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온 날, 나는 너무 취해서 꿈도 꾸지 않았다. 새벽 갈증에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서 놈은 떨고 있었다. 무척이나 나를 무서워하였다. ⑦방 모서리에 쭈글뜨리고 깅낑거렸다. 도적을 지키는 덴 개가 제일이라고 선생님께서 주신 강아지를 세퍼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혼들리는 창문 소리에도 놀라 쪄쩔매는 놈의 분홍빛 빌바닥, 열흘쯤 뒤에 밖에 내어놓았다. 밤새도록 울었다. 어둠에 덮인 지상에서의 철야. 어둠을 견뎌야 개가 된다고 타이르면서 이튿날 사슬로 목을 매어 라일락 둥치에 묶어놓았다. 절망하는 눈치였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⑨라일락꽃이 필 때쯤 놈은 사슬에 익숙해 있었다. 놈이 컹컹 짖을수록 나는 깊은 잠을 잤다.

라일락이 져버렸을 때, 더 굵은 사슬로 바꿔 매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기도 하였다. ⑩화장품 외판여인의 바지를 물어뜯기도 하였다. 밤새도록 잠들지 않았다. 때로는 두어 끼씩 굶기기도 하고 린치를 가하기도 하였다. 놈은 완벽한 개가 되어 있었다.

【봄】이 와서 라일락 가지에 다시 짜이 틀 때쯤 다시 한번 사슬을 바꿔 매었다. 힘센 개가 된 놈은 나의 충복이 되었다. 늦은 밤 소주에 젓은 내가 골목 안에 들어서면 컹컹 짖어 나를 반겼다. 나는 놈의 목에서 사슬을 풀었다. ⑪지상은 완전히 결빙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는 ⑫달릴 수 있는 한 달리고 별안간 멈춰 서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 몽둥이가 땅지 않는 곳,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선 다시 돌아 오지 않았다. “개같은 놈!” 하늘 아래 그 소리만 자욱하였다. 나를 향해 그 소리만 자욱하였다.

- 이건청, 「축견(畜犬)」 -

(다)

여름밤에 잠을 자려는데, ⑬개구리들이 다투어 울어대니 그 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다. 잠이 오지 않아 생각해 보았다. 형체를 받고 기운을 부여받은 것들은 모두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 우리 인간에게 잘 보이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동식물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면 가차 없이 없애버린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소리는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물의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라여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사람들이 벌이는 시끄러운 논쟁과 다툼의 소리, 욕심에 가득 찬 그 소리들이 개구리 울음소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천지의 조화로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가?

트인 소리든 막힌 소리든 그 근원은 모두 같다. 똑같이 자연의 소리에 속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기어이 저 자연의 소리를 없애고 내 뜻대로 하려 드니, 이야기로 이치에 어둡고 어질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 장유, 「개구리 울음소리에 대하여(蛙鳴賦)」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이중적인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축전」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속에 길들여지면서도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개는 복종과 충성심을 주인에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악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며, 권위와 폭력 속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이 시는 순간의 기회 속에 자유를 추구하는 개의 모습을 통해 권위와 폭력의 허구성을 통렬히 비판하며, 인간성의 회복을 갈망하는 작가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① ㉠은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지만, 아직 권력의 억압에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라일락의 개화와 사슬의 억압이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현실에 길들여지는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대상이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여전히 악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권위적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은 찰나의 기회를 바탕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개의 행동을 자연물과 조응시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은 암시하고 있다.
- ⑤ ㉤은 달려나가다가 멈춰 서는 개의 모습을 통해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현실의 익숙함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20. (가)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바다'에 도달한 후의 충만감을, [B]에서 화자는 '수평'의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낸다.
- ② [A]의 '경사감'과 [C]의 '기우는 세계'는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가쁜한 나의 신발'은 그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징한다.
- ③ [A]에서 화자는 '무거운 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해방감을, [B]에서는 '남색'으로 표현된 바다와 '수평'을 통해 느끼는 자연과의 합일감을 드러낸다.
- ④ [B]의 '잔잔한 세계'는 화자가 동경하는 과거의 평온함을, [C]의 '해가 저물고' 있는 상황은 과거와 단절된 현재의 쓸쓸한 처지를 암시한다.

- ⑤ [B]에서 '남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신비감을 드러내고, [C]에서는 '저녁 햇살'을 통해 그 신비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화자가 궁정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의 질서를, ⓑ는 화자가 길들이려는 욕망의 대상을 보여준다.
- ② ⓑ는 화자와의 관계 변화가 서사의 중심이 되며, ⓒ는 글쓴이의 인식 전환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그 본연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대상이다.
- ④ ⓐ, ⓑ, ⓒ는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 본연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그려진다.
- ⑤ ⓐ와 ⓑ는 화자나 글쓴이의 성찰을 이끄는 반면, ⓓ는 화자의 폭력성이 투영되는 대상이 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 속 화자는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낸다. 어떤 화자는 자연을 미적 체험의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이 경우 자연은 화자 개인의 내면과 감응하며 신비롭거나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어떤 화자는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을 계기로 삼아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깨달음이나 윤리적 성찰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때 자연은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매개가 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얻는 주관적 인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② (다)에서 글쓴이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대한 생각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바다'를 '심오한, 잔잔한 세계'로 인식하는 것과, (다)에서 글쓴이가 '다투어 울어대'는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인간 사회의 규범을 자연에서 발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④ (가)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개인의 미적 체험에, (다)는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축발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가 '무거운 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것은 개인적 번뇌에서의 해방을, (다)에서 '인간의 소리'가 '천지의 조화로운 소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군.

23. 바다와 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나)의 ‘봄’은 억압된 상황에 변화를 유발하는 시간으로 기능한다.
- ② (가)의 ‘바다’는 화자에게 시련을, (나)의 ‘봄’은 화자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공간이다.
- ③ (가)의 ‘바다’와 (나)의 ‘봄’은 모두 화자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 ④ (가)의 ‘바다’는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 세계를, (나)의 ‘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실을 상징한다.
- ⑤ (가)의 ‘바다’와 (나)의 ‘봄’은 모두 화자가 타인과 교감하며 고독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작이 승상의 사위가 된 지 십 여일이 되니, 잠자기를 너무 늦도록 하고 글읽기를 아니하니, 공이 물어 가로되
“네 잠자기를 너무 늦도록 하고 선비로서 학문을 아니하니 어인 뜻이뇨?”

이생이 대왈

“잠은 평생 소원이요, 글 읽기는 싫어서 아니하나이다”

양 공이 웃으며,

“선비 글 읽기 싫고 무엇을 하리오?”

이생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사위의 나이 십 세라. 아직 너무 일렀으니 이십부터 하려 하나이다.” / 공이 대왈.

⑦“네 말이 비록 바람직하지 못하나 네 뜻대로 하라”

공이 말마다 사랑하고 중히 여김이 날로 더하니, 생이 중심에 감격함이 되었더라.

차설, 부인과 가중(家中)은 나날이 더욱 화를 내어 심화 일었으되 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더니 자고로 영웅 호걸이 불운이 많은 지라. 공이 숙환(宿患)*이 점점 중하니 가중이 황황하여 병을 구완한 지 십여 일에 다달아 더 중해지니, 사위 설생 부부 승상의 병세 위중함을 듣고 심사 망극하여 설생으로 더불어 금주에 이르러 한 가지로 약을 지어 오니, 공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을 알고 두 아들더러 이르되,

“너희 조정에 돌아갈 기한이 다 되었을 것이니 어찌 그저 머무르고 있느뇨?” /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⑧“기한이 지났으나 대인 병환이 이러하시니, 가지 못하고 황제께 표(表)를 올렸나이다.”

공 왈

“불연하다. 신하된 자로 몸을 나라에 허하매 마땅히 부모 처자를 간절히 생각하며 그리는 것은 나중의 것이니, 명일로 발행해야 경성으로 가라.”

인하야 안색을 가다듬어 죄를 정히 하고 두 아들을 경계 왈,

⑨“네 아비 몸에 덕이 두텁지 아니하고 재주가 미약하거늘, 천은 (天恩)을 과히 입사와 당치 못할 이름이 자주 들리니 내 매양 스스로 부끄러운 바라. 나이 늙고 분에 넘치는 일이 많을새, 용안 [A] (龍顏)을 이별하고 이에 이르매, 조석으로 상(上)을 생각하나

기운을 수습지 못하야 뺎지 못하니 다시 뵈옵고 죽음을 바라더니, 이에 수명이 위급하니 다시 뵈옵지 못할지니 지하에 나가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중략 줄거리] 승상이 죽은 후 경작은 처가 식구들의 휩박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경작은 학문을 닦아 장원 급제를 하게 되고, 변왕의 모반을 원수가 되어 평정하게 된다.

이때 원수 거룩한 위의에 승상을 더하야 개가(凱歌)를 부르고 금주로 지날 새, 금주 일군이 진동하니 모든 부녀 집이 엿보더니 양부에서 한 부인이 또한 자부* 남, 성 두 부인을 데리고 종각에서 승상의 지남을 보려 하더니 문득 서편으로 붉은 양산이 움직이며 병마 기치 정정제제(整整濟濟)하야 정기를 떨치고 군사들이 앞을 인도하야 승전곡을 어울려 부르니 위엄이 늄렬(凜烈)하더라.

한 부인이 칭찬 왈,

“기특하며 기특하다. 저의 어진 소리 사해에 퍼졌더니 그 풍도 [B]를 보매 헛되지 아니로다. 어떤 사람이 능히 그런 아들을 두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저런 사위를 얻었는고? 다복함이 만고의 일인아로다”

칭찬함을 이에 그치지 아니하니, 남부인이 성부인을 돌아보아 왈, “제 어찌 풍골 기상이 이생과 흡사한 것이 많느뇨?”

성씨 역시 이르고 괴이히 여기더니 부인이 이르되,

⑩“이랑은 천고에 한미한 남자요. 이 사람은 만고 영웅 호걸이라. 어찌 비할 바이리오”

인하야 행차 지나매 두 부인을 데리고 집에 이르러 두 아들로 더불어 칭찬함을 마지 않더라.

남, 성, 두 부인이 양소재의 방에 이르니 소저 기운을 잠깐 수습하거늘, 두 부인이 승상 병마의 거룩함을 이르고 인하야 탄식 왈, “풍도 기상이 얼핏 이생과 같으니 문득 반갑고 척감하더라”

소저 이 말을 들으매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며 한숨지고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며 벽을 향하여 눕거늘, 두 부인이 위로하더니 두어 시녀 황급히 들어와 고하되,

“아까 지나시던 승상이 이 상공 분묘에 배알하시며 통곡하시나이다.” / 어사 왈,

“일정 친족일도다.” / 한림 왈,

⑪“본디 친척이 없고 한미함이 여차하니 어이 그런 영웅이 나시리오. 일정 친한 사람이렸다.”

이윽고 시녀 또 총총히 들어와 급히 아뢰되,

“승상이 우리 노야(老爺) 분묘에 슬퍼 울며 배알하시나이다.”

어사 아무런 줄 몰라 이르되,

“대인이 생시에 이경모란 한 이를 사귀심이 없더니 알지 못할게라. 어떤 자인고?”

침묵하야 생각하더니, 문득 대문 앞이 소란스럽고 큰 소리가 마을을 진동하더니, 또 시녀 보하되

“대승상 행차 문 앞에 이르샤 이 노야를 청하시나이다.”

어사와 한림이 연고를 몰라 하니 이미 집에 이르렀다 하는지라. 재상께 뵈는 의복을 정히 하고 황급히 외실로 나아가니 옥문거 벌써 정전에 이르렀더라. 두 사람이 줄을 짓고 당하에 섰더니 승상이 완완히 내려 정전에 이르매 두 사람이 공손히 재배하거늘, 승상이

답례하고 한가지로 충중에 이르니, 승상이 말을 펴 가로되
“십일 세 헤어진 후로 집안이 다 무사하시니이까?”
두 사람이 오래 유유하다가 왈,
“소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일찍 상국으로 더불어 면분이 없으
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으로써 가르치시리이까?”
승상이 잠소(潛笑)하고 왈,
④ 양 형이 어찌 동생을 이렇듯 과히 우대하시느뇨? 형이 능히
동생을 몰라보는도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의 집에 들어온
경작이니 모름이 의아치 말지어다.”
두 사람이 믿지 아니하여 익히 보거늘, 승상이 재삼 밝히어 이르
매 바야흐로 이경작인 줄 깨치매 실로 몽매(夢寐)인 듯하야 오래
말을 못하더니 이윽고 왈,
“그대 어찌하야 몸이 이에 이르렀느뇨?”
승상이 전후 곡절을 약간 베풀고
“존당과 가중이 편안하시니이까?” / 답왈,
“모친은 무양하시나 누이 병이 의독하니라.”
승상이 가로되
“내 월음을 장모 일정 알지 못하시리니 전함이 어떠하리오.”
어사 형제 저의 진덕함을 알매 이르러는 옛일을 생각하매 매우
부끄럽게 여기니, 일변 반가운지라 그 손을 잡아 재삼 치하하야 가
로되,
“전일 우리 형제에 보채임이 많더니 바라건대 개의치 말라”
승상이 혼연히 답왈
“소제는 인물이 본대 소탈하야 아침에 지난 일을 낮에 능히 깨치
지 못하리니 저 십 년 전 일을 어이 꿈엔들 생각하리오.”
-작자미상, 「낙성비룡」 -
*숙환: 오래 묵은 병 / *자부: 머느리

24. 양소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사, 한림과 남매 관계로 현재 외병중에 있다.
- ②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두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의 행방을 깨닫게 된다.
- ④ 남편에 대한 심정이 식구들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아직 남편이 귀환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2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발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B]의 발화의 평가 대상과 같
은 인물이다.
- ② [A]에서 양 공이 아들들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말은, [B]에서 이
를 지켜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A]에서 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물의 내적 갈등은, [B]에
서 부인으로 인해 해소되게 된다.
- ④ [A]에서 겸양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의 발화는 [B]에서 그 덕을
칭송받게 된다.
- ⑤ [A]의 발화에서는 주체의 소망이, [B]의 발화에서는 주체의 부려
움이 드러나고 있다.

26. ① ~ 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의
견을 존중해주고 있다.
- ② ②은 상대방의 물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위중하여 원칙을 지키
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 ③ ③은 동일한 인물에 대해 평가를 달리 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에 동
의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④은 분묘의 주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승상의 행위에 정
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⑤은 대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서운함을 표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지인지감(知人之監) 화소’는 남들이 모르는 타인의 자질을 퀘
뚫어 보는 능력이다. 「낙성비룡」에서는 지인지감을 가진 인물
이 보잘 것 없는 인물의 능력을 퀘뚫어 보고 그를 선택하는 내
용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지인지감을 가지지 못한 주변인들
이 선택된 인물의 못난 행위를 보고 팝박하게 되지만, 결국 그
인물이 입신양명을 이룩하게 되며, 자신을 팝박한 인물을 용서
하는 과정이 제시된다. 이렇듯 위 소설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비범성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못난 주인공을 내세움으
로써 서사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 ① 승상이 이생의 의도를 존중해주고 그를 중히 여기는 것은 부인
이 그를 한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인지감의 능력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② 이생이 평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
과 달리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물이 쫓겨남
으로써 서사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군.
- ③ 남, 성 두 부인이 승상의 행차를 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본
인들이 알고 있는 인물의 과거 행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괴리감
이 있기 때문이군.
- ④ 어사 형제가 옛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에서, 아버지와 달리
인물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며, 이에 승상
이 개의치 않음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고 있군.
- ⑤ 이생이 학문을 닦아 출세하게 되는 데서, 양 공이 이생의 자질
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이생이 급제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①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 줬다.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살그머니 좀더 힘을 주어 끼면서 ②땀이 송글송글 맷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그려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 버렸다.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 잔 하려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되었습니다. 꼭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었는데…"

③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댔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난 커피. 이형은?" / "저도 그걸로…"

"그런데 말썽이 난 것은 지난 주일의 만화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일주일 동안에 히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아마 독자들을… 하여튼 그 주일의 독자 투서 때문에 저나 국장님이 좀 애를 태웠지요."

그러나 가장 애가 탔던 사람은 만화를 그리는 바로 그였다.

"예,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어디 천디션이 좋지 않으셨던가요?"

"예, 배가 좀… 배가 꼭 아파서…"

그러나 배앓이는 어제 새벽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아, 그거 야단났군요. 크로로마이싱 잡숴 보셨어요?"

"뭐 이젠 다 나았습니다." / "아, 다행이군요."

찻잔이 그들 앞에 놓여졌다. / "자, 드시다."

문화부장이 말했다. 그들은 뜨거운 차를 홀짝거리며 마셨다.

④예의상 찻잔을 탁자 위에 잠시 놓았다가 다시 들어서 마시곤 했다.

"이상하게도 이형과는 차 한잔 같이 나눌 기회가 없었군요. 이게 아마 처음이지요?" /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요즘 우리 신문의 기고가들 컨디션이 저조한 모양예요. 지금 연재중인 소설에 대해서도 매일 거의 대여섯 통씩 투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니 중단시켜 버리라는 거지요. 우리 신문에 수난이 닥친 모양입니다."

(중략)

그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⑤열른 생각난 사람이 엊저녁에 술을 사주던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리에 있었다.

"김 선생님, 결국 목 잘렸습니다."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었다. / "제기랄, 또 한잔할까?"

"그렵시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지금 가죠."

"오케. 제기랄, 한잔하세."

수화기를 놓고 나올 때 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이 따라주는 술을 빨리빨리 마셨다.

"좀 친친히 마시게."

김 선생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싱긋 웃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그 단순하면서도 회화적인 선이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야."

김 선생은 술잔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계로 그런 것 같은 양키들의 만화가 진짜인 줄로 알고 있거든."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쥐뿔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

그는 술을 또 들이켰다. 김 선생은 그를 헐끗 쳐다보았다.

"제가 ⑥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 그는 헐끗 말했다. /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예요, 총대를 쥐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군대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 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볼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 "인생이란 말야…" / "허, 또 나오시는군." / "허,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⑦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려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려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

28. ①~⑤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서술자가 인식 주체를 알리는 표지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②: 대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음을 인물의 의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③ ③: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④: 인물에 대한 표지를 생략하여 초점 대상과 서술자가 겹쳐 보이게 하고 있다.
- ⑤ ⑤: 지각 주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상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병치되고 있다.

29. 「차나 한 잔」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 ② 진정한 교감보다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위로를 구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 ③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료에게 온정어린 위로를 건네며 동질감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 ④ 오랫동안 계획했던 만남을 실현하며 상대방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는 제안이다.
- ⑤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30. ①과 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은 인물이 타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간이며, ②는 인물이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안정감을 느꼈던 공간이다.
- ② ①은 인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통보받는 공간이며, ②는 인물이 자신의 의지대로 역할을 선택할 수 없었던 공간이다.
- ③ ①은 인물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공간이며, ②는 인물이 조직의 부조리함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던 공간이다.
- ④ ①과 ②는 모두 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①과 ②는 모두 인물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차나 한 잔」은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개인이 겪는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다룬다. 작품 속 인물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며 내면의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물들은 타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깊은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차나 한 잔'이라는 소통의 시도마저도 진정한 교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가능하게 되면서, 현대 사회의 소통 부재라는 비극적 상황이 아아러니하게 드러난다.

- ① 문화부장이 해고를 통보하며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입장 을 변호하며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배가 아프다는 '그'의 말에 문화부장이 '크로로마이싱 잡숴 보셨'냐고 말하는 것은, 진실한 내면의 교감 없이 피상적인 위로가 오가는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군.
- ③ 문화부장과 함께 차를 마시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아주 섭섭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소통의 공간이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군.
- ④ 그에게 김선생이 '제기랄, 또 한잔 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상대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시인의 타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군.
- ⑤ 그가 문화부장을 '두꺼비 같은 눈을 부라'린다고 묘사한 것은 소통의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 대상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디서 노랫소리 하늘로 일어나니
놀라서 바라보니 회상대 올라 앉아
푸른 옷 붉은 치마 단풍 가지 꺾어 쥐고
만장산 구름 위에서 사람을 놀랠 시고 / 어와 기이하다.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 남겨
바람에 부친 듯이 이 광경 보는구나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 곡조 부르고
군산월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 앞에 영웅 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소리치라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이천 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네 덕이로다

- 김진형, 「복친가」 -

(나)

임금님도 처음에는 총애가 중했으니
 여덟 번 사관 행차 우연한 뜻이실까
 좌우에 모신 사람 무슨 말씀 아뢰길래
 그 사이에 어이하여 이 뜻을 변하셨나
 간신이 틈을 보아 안팎으로 호응하니
 흥인의 한 상소로 처음을 삼아 두고
 밤낮에 마련하여 일시에 일어나니
한 사람 잡는 말이 죄목도 많기도 많구나
 무리하고 폐악한 말 꺼내기 즉하거니
 임금을 폄하하는 말이 터럭 하나라도 비슷하며
 국통*을 낮추어 말함은 어지간히 비슷한가
 이러한 못할 말로 함부로 하거든
 그 밖의 다른 말을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중략)

그 사이 몇 날 인가 이월이 벌써로다
 고개 위를 바라보니 쌍인 눈이 하얗구나
 시절을 헤아리고 **고향을 생각하니**
 화양동 심은 매화 몇 가지 피었으며
 소제의 약한 버들 벌써 푸르리라
 어떻게 이 땅에는 봄빛이 없으며
 바람은 어이하여 그토록 요란한가
 창문을 주어 닫고 적막하게 앉았으니
집 염려 나라 근심 생각을 가리는 것이 많기도 많구나
 이후에 무슨 죄를 또 아니 더할런가
댁지에서 겨우 든 잠 몇 번이나 놀랬나
 하늘을 원망할까 사람을 탓할까

- 송주석, 「복관곡」 -

*국통: 임금의 혈통. 여기서는 임금을 칭함

3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의 핵심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⑤ 이상적 공간으로의 도피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3. ㉠, ㉡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임금과의 단절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표현하는 공간이다.
- ③ ㉠에서 화자는 풍류를 즐기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에서 화자는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 ④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배 문학은 작가의 입장에 따라 그 양상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가)는 유배객의 입장에서도 북관 수령의 배려로 산천을 유람하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기생 군산월과의 사랑 등을 서술하여, 일반적인 유배 문학과의 차별점을 보여 준다. 한편 (나)는 작가가 조부 송시열의 유배행에 따라나서며 느낀 소회를 그린 작품으로, 조부의 유배행에 대한 불만, 간신에 대한 비판, 임금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술 과정 중 관찰자와 유배자의 시점이 모호해져 유배자가 직접 서술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① (가)의 화자가 '회상대 올라 앉아' 경치를 완상하며 자신이 있는 장소를 '선계'로 인식하는 것은 북관 수령의 배려로 인한 것이다.
- ② (나)는 '간신'들이 '안팎으로 호응'하여 '한 사람'을 참소했다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서 간신들에 대한 화자의 울분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봉우리를 '신선의 동굴'로 느끼는 것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는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신하들에게 좌우되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군산월의 '거동'을 보고 '반할 뻔'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배 가사와 차이점을, (나)는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친족의 유배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군.
- ⑤ (가)의 '본 것이 큰 병'에서는 대상에 대한 호감이, (나)의 '집'과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서는 서술 시점이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수능맞집

[35-37] 다음은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기호 1번, 여러분의 새로운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장원영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혹시 여러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복도를 서성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자료 1) 현재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거나 소통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학생들을 위한 휴게 및 소통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쉴 곳 없는 학교생활은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교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저 장원영은, 여러분의 ‘공간 복지’와 ‘문화 복지’를 책임질 두 가지 핵심 공약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관 1층의 비어있는 가사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형 라운지’를 만들겠습니다. (자료 2) 사진에 보이는 이 공간은 단순히 쉬는 곳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보드게임을 즐기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소파와 테이블의 배치를 등글게 하여 안락하면서도 서로 소통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둘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누리 문화의 날’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다음 달의 주제를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자료 3) 이 표와 같이 e스포츠 대회, 버스킹 페스티벌, 반별 중고장터 등,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학교를 학업에만 집중하는 스트레스 가득한 공간이 아닌, 학업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즐거운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저 장원영을 믿고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설 중간에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청중이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도록 돋고 있다.
- ②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통계 자료와 시작 자료를 활용하여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공약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6. 다음은 연설자가 보여준 자료이다.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자료 2’는 첫 번째 공약의 이행 후 달라진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공약에 대한 청중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 ③ ‘자료 3’은 두 번째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예시로 들어, 해당 공약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료 2’와 ‘자료 3’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연설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⑤ ‘자료 3’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문화의 날’ 행사들의 실적을 보여 줌으로써, 두 번째 공약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37. <보기>는 위 연설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연설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라운지랑 문화의 날 공약 둘 다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서 기대돼.

학생 2: 공약의 방향은 좋은데, 예산 마련 방안이나 학업 부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돼.

학생 3: 연설을 들으니 학생 복지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됐어. ‘체육 복지’처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약은 없는지 추가로 찾아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공약들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학생 2는 연설자의 공약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연설자가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연설자의 공약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연설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38-42] (가)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자전거로 통학하며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자전거 거치대 이용에 있어 많은 학우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 학교의 자전거 거치대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후문에 위치한 거치대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전거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거치대 주변 화단이나 건물 벽에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전거 간의 충돌로 인한 파손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 친구는 거치대에 자리가 없어 화단 옆에 세워두었던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한, 기존 거치대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곳곳이 녹슬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어 자전거를 굽히게 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비와 햇빛을 피할 가림막조차 없어 자전거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거나 고장 난 채로 수개월째 방치된 자전거들이 소중한 거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가림막이 설치된 2단 자전거 거치대 확충:** 현재 거치대 옆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2단 거치대를 설치하면, 좁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림막 설치는 날씨 변화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자전거 등록제' 도입 및 주기적인 관리:** 학기 초에 자전거 통학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고유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배부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거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학생 1: 어제 올라온 자전거 거치대 건의 글, 다들 심도 있게 읽어 봤죠? 문제 지적부터 개선 방안까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우리 학생회가 꼭 다뤄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2: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특히 방치된 자전거 문제는 평소에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제안된 자전거 등록제는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

건의를 학교 측에 전달해서 예산을 받아내려면, 이 글의 내용에 더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보강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거예요.

학생 3: 맞아요. 좋은 제안이라도 근거가 부족하면 단순한 희망 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선된 시설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시설이니까 소중히 사용하자' 같은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1: 아, 캠페인까지 생각하다니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일단 시설 개선 건의를 위한 자료 수집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객관적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 2: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가 필요해요. 자전거 통학 학생 수, 현재 시설 만족도, 건의문에 나온 2단 거치대와 등록제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통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거치대 주변이 얼마나 심각한지, 녹슬거나 파손된 부분은 어떤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시[A] 각 자료로 만드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백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으니까요.

학생 3: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건의 글을 써준 학생의 노력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우리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게시판에 공식적인 답글을 작성해서 우리의 논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설문 조사 계획도 안내하면 좋겠어요.

학생 2: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의 자전거 거치대 운영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사해보도록 하죠?

학생 1: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역할을 나눠보죠. 우선 제가 다른 학교들의 자전거 거치대 운영 우수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 건의가 더 탄탄해질 테니까요. 학생 2는 설문 조사 문항 초안을, 학생 3은 게시판 답글 작성과 사진 촬영 계획을 맡아주는 건 어떨까요?

학생 2, 3: 좋아요!

학생 1: 그럼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모두 모이면, 학교 측에 전의할 건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8. (가)의 작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으로서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학생회에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전교생의 의견을 대표하여, 학교 측에게 해결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학생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④ 누리소통망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 ⑤ 학생회 임원의 자격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다.

39.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적절한 건의 내용인가? ⑥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는가? ② 문제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가? ④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⑤ 해결 방안이 현실적인가?

- ① 학생들의 안전 및 편의와 관련된 자전거 거치대 시설 개선을 다룬 것은, 학생회가 다룰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④를 충족하는군.
- ② 친구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실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⑤를 충족하는군.
- ③ 노후화된 자전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⑥를 충족하는군.
- ④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고 번호를 붙여 제시한 것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했다는 점에서 ②를 충족하는군.
- 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대신 유휴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고려했다는 점에서 ③를 충족하는군.

40. (가)의 건의문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학생들은 (가)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나)의 학생들은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삼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③ (나)의 학생들은 (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사진 촬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 ④ (나)의 학생들은 (가)에서 제안된 시설 개선 외에도,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 ⑤ (나)의 학생들은 (가)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1. [A]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캠페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3은 학생 2의 제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1은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하고, 학생 3은 시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 수집 방안을, 학생 3은 건의 글 작성자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학생 1, 2, 3은 모두 건의문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학교 측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42. <보기>는 학생회 학생들이 학교 측에 건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쓴 건의문의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단계] 문제 상황 제시: 자전거 거치대 시설 부족 및 노후화 문제 제기 [2단계] 객관적 실태 분석: 설문 조사 통계 및 현장 사진 자료 제시 [3-1단계] 구체적 해결 방안 ①: 2단 거치대 확충 및 가림막 설치 제안 [3-2단계] 구체적 해결 방안 ②: 자전거 등록제 도입 제안 [4단계] 제안의 타당성 강화: 타 학교 우수 운영 사례 제시 [5단계]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시설 개선의 긍정적 효과와 건의 채택 촉구

- ① [2단계]는, 설문 조사와 사진 자료로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하는 학생 2의 제안을 반영하여 구성되었군.
- ② [4단계]는, 타 지역 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하자는 학생 2의 제안을 반영하여 구성되었군.
- ③ [3-2단계]는, (가)의 해결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되었군.
- ④ [5단계]는, 건의 글을 공식 안건으로 다뤄 학교 측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학생 1의 의도를 반영하여 구성되었군.
- ⑤ [2단계]는, 시설의 문제 상황을 촬영한 학생 3의 사진으로 제시되었다.

[43-45] 다음은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학생의 보고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A]

최근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의 철학을 고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바로 'ESG 경영'이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 이 글에서는 ESG 경영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Environment)'은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패션 기업은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원단으로 옷을 제작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사회(Social)'는 기업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원의 인권 존중,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소비자 보호,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이 포함된다. 가령, 국내의 한 IT 기업은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지배 구조(Governance)’는 기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 결정 구조를 의미한다.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경영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 결정의 편향성을 줄이는 것이 좋은 예이다.

ESG 경영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잠재적인 위기를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ESG 경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3. 다음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 ① 글의 서두에 ESG 경영의 개념과 각 요소(E, S, G)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겠어.
- ②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각 ESG 요소별로 구체적인 기업의 실천 사례를 하나씩 제시해야겠어.
- ③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장률을 비교하여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④ ESG의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설명하는 본문 구조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겠어.
- ⑤ 글의 말미에 ESG 경영이 지닌 의미를 정리하고, 청소년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해야겠어.

44. <보기>를 반영하여 [A]에 들어갈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1: 글의 핵심어인 ‘ESG 경영’을 포함할 것.
- 조건 2: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것.
- 조건 3: 글의 주제을 잘 반영할 것

- ① 기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열쇠, ESG 경영
- ② 착한 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ESG 경영을 아시나요?
- ③ 미래 사회의 주인공,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가치 소비란?
- ④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
- ⑤ ESG 경영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전문가 인터뷰

“ESG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자들, 소비자들, 심지어 취업 준비생들까지 기업의 ESG 수준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Z세대는 ‘가치 소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ESG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ㄴ. 연구 보고서

2023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ESG 요소를 경영 전략에 반영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매출 성장률이 7.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ㄷ. 통계 자료

ESG 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업 비율

68%

ESG 경영 시 어려운 점으로 정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의 부족을 꼽은 기업 비율

52%

대한상총최의소

- ① ㄱ을 활용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에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여 주장을 강화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ESG 경영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 기업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 ③ ㄷ의 수치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ESG 경영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실제로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 ④ ㄱ과 ㄷ을 함께 고려하여,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평가 체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마지막 문단에 추가한다.
- ⑤ ㄷ의 자료를 활용하여, 2문단의 패션 기업이 ESG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음을 강조하여 모범적인 사례임을 부각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수능맞집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使動)과,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被動)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용언 어간에 특정 접사를 결합하는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접사가 사동과 피동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접사 '-이-', '-하-', '-리-', '-기-'는 문맥에 따라 사동과 피동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이다'는 '아들을 보이시고(아들을 보게 하시고)'처럼 새로운 목적어를 필요로 하며 '보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사동으로, '구름 속에 용이 보이거늘(용이 보임을 당하거늘)'과 같이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피동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이를 접사가 결합된 용언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 하다'나 '-어지다'와 같은 통사적 구조으로 바꾸어 보거나,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유무 등 문장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

이처럼 중세 국어는 '-게 하다'와 같은 통사적 사동·피동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세 국어의 사동과 피동 표현은 기본적으로 파생적 방법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구분은 문맥적 의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한편,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사동 접사들이 존재했다. '-오/우', '-호/후', '-구', '-추'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살다'의 어간 '살-'에 '-오-'가 결합한 '살오다'는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솟다'의 어간 '솟-'에 '-구-'가 결합한 '솟구다'는 '솟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또한 '맞다'의 어간 '맞-'에 '-추-'가 결합한 '맞추다' 역시 사동의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접사들은 이후 형태가 변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사동문과 피동문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접사를 활용하여 실현되었군.
- ② 접사 '-이-'가 결합된 '보이다'의 문법적 기능은 목적어의 유무와 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군.
- ③ 중세 국어에서는 '-오/우', '-구'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사동 접사들이 사용되었군.
- ④ 접사 '-기-'는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지만, 접사 '-추-'는 주로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냈군.
- ⑤ 현대국어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는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형태적 구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미 파악이 불가능했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예문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큰 고기 | 작은 고기에게 먹히듯다

(현대어: 큰 고기가 작은 고기에게 먹히는구나) -노절대언해-

(나) 성이 아버찌 그 말을 들으다

(현대어: 성이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듣게 하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다) 봄바람이 눈을 녹이시니

(현대어: 봄바람이 눈을 녹이니) -두시언해-

① (가)의 '먹히듯다'는 어간 '먹-'에 접사 '-하-'가 결합하여,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나)의 '듣으다'는 어간 '듣-'에 사동 접사 '-오-'가 결합하여,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다)의 '녹이시니'는 어간 '녹-'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주어 '봄바람'이 목적어 '눈'을 녹게 만드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나)의 '-오-'와 (다)의 '-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동 표현을 만들고 있다.

⑤ (나)의 '-오-'와 (다)의 '-이-'는 사동 접사이지만, 각각 간접의 의미와 직접의 의미를 가진다.

37. 다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장을 고르면? [3점]

<보기>

<조건 1> 서술어의 자릿수가 세 자리일 것

<조건 2> 둘 이상의 안전절이 쓰일 것

<조건 3> 수식받는 대상과 겹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절을 쓸 것.

① 민수는 어제 서점에서 내가 사려고 했던 책을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② 나는 그가 범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다.

③ 나는 모두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그를 나의 유일한 친구로 삼았다.

④ 우리는 철수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거짓임을 사람들에게 밝혔다.

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약속을 마침내 우리는 지켰다.

38. <보기>의 사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갈다¹ [갈:다] [동사]

- ① 무딘 것을 날카롭게 만들다. (예) 칼을 날카롭게 갈았다.
- ② 맷돌 따위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거나 쟁을 내다. (예) 믹서에 과일을 갈아 주스를 만들었다.

갈다² [갈:다] [동사]

- ① 사용하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예) 전구를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 ② 어떤 직책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예) 감독을 새로운 인물로 갈았다.

갈다³ [갈:다] [동사]

- ① 쟁기 따위의 농기구로 땅을 파서 뒤집다. (예)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 ① ‘갈다’, ‘갈다²’, ‘갈다³’는 표제어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임을 알 수 있군.
- ② ‘칼을 갈았다[가란따]’와 ‘밭을 갈고[갈:고]’를 보니, ‘갈다’의 어간은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③ ‘갈다¹’의 ①과 달리 ‘갈다³’의 ①은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로 쓰이는군.
- ④ ‘오래된 타이어를 갈아야겠다.’에 쓰인 ‘갈아야겠다’는 ‘갈다²’의 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군.
- ⑤ ‘빙수를 만들었다.’ 얼음을 갈아 팥에 쓰인 ‘갈아’는 얼음을 더 잘 게 부수었다는 점에서 ‘갈다’의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군.

3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중에서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접두 파생어라고 한다. 이때 어근 앞에 붙는 접사는 접두사이다. 접사는 어근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접미 파생어이며, 이때 어근 뒤에 붙는 접사는 접미사이다.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안녕히
- ② 멋쩍다
- ③ 출렁이다
- ④ 높다랗다
- ⑤ 평화롭다

[40-44] (가)는 포스터 제작을 위한 학생회의 온라인 대화이고,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이다. 둘을 답하시오.

(가)



애들아, 이번 달이 ‘탄소중립 실천의 달’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온라인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야해. 좋은 의견 있을까?

지효

사나

⑦ 일단 친구들이 다 와야 하지 않을까? 미나가 아직 안왔어.

정연

미나가 오면 우리가 했던 대화 내용을 캡쳐 해서 보여주자. 일단 포스터 컨셉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

사나

포스터에 이미지를 넣는 것은 어때?

<미나 님이 대회방에 참여하였습니다>

미나

⑧ 미안 애들아, 방과 후 학습이 좀 늦어졌네. 무슨 대화하고 있었어?

사나

[지효: 애들아...].jpg
지금 우리가 하던 대화야. 미나 너, 혹시 좋은 의견 있니?

미나

아... 탄소 중립과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해야 하는구나! 음... 그럼 먼저 웹에서 ‘탄소중립 정의’랑 ‘정부 지원 정책’ 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보자.

지효

사나

그럼 나는 디자인 구성 맡을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개념 설명, 실천 방법, 정책 지원 이렇게 나누고 색은 초록·파랑 계열로 통일하는 거야.

정연

폰트랑 제목 위치도 중요해. 타이틀은 상단 중앙에, 본문은 아이콘 옆에 배치하고 읽기 쉬운 구성으로!

미나

정부 지원 정책의 경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는 것은 어때?

지효

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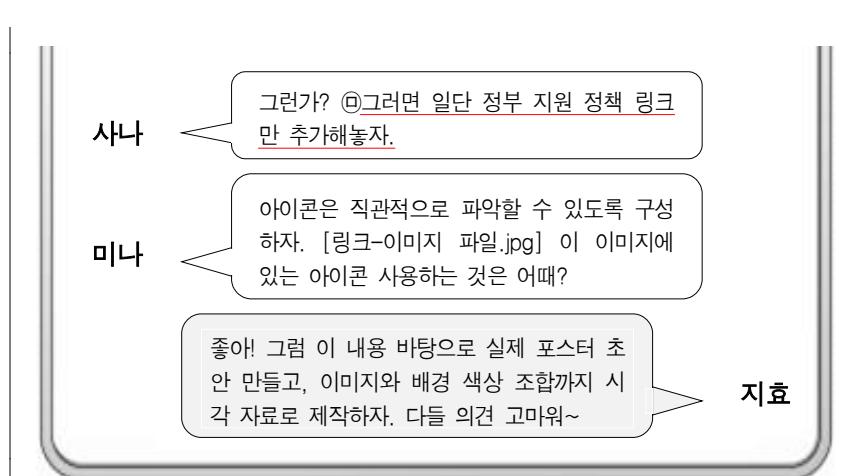
⑨ 아이콘 스타일은 깔끔한 선 아이콘으로 통일하고, 각 실천 방법별로 한 줄 설명 넣자.

예: “텀블러 사용 - 일회용 컵 줄이기”처럼 말이야.

정연

QR 코드도 추가해서 학생들이 자세한 캠페인 내용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QR 코드는 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 일단 QR 코드 제작은 보류하자.



(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저탄소 생활을 시작해 봅시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상쇄하는 것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

장바구니·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자동차 대신 이용해요
절전형 제품 사용 에너지를 아껴 써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남기지 않아요

정부 지원 정책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 태양광 주택 설치 비용 지원

정부 사이트 링크
[http://www.@%\\$#\\$.com](http://www.@%$#$.com)

40. (가)에 나타난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들은 늦게 참여한 친구를 위해, 이전 대화 내용을 이미지로 공유하여 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들은 논의에 필요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웹을 통해 관련 자료를 탐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대화 참여자들은 디자인에 참고할 시각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이미지 파일의 링크를 대화방에 제시하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함께 수정할 수 있는 공유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 ⑤ 대화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홍보물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41. (나)의 포스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작 과정에서 수집한 외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만화 형식으로 제시하여 정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각 항목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QR 코드를 삽입하여, 관련 동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장하고 있다.
- ⑤ 외부 링크를 첨부하여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42.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의 '일단'은 본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대화의 순서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② ⑨의 '미안'은 자신이 대화에 늦게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관계 유지 기능을 한다.
- ③ ⑩의 '좋아'는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며,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 역할 분담 단계로 논의를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 ④ ⑪은 앞선 발화 내용의 일부를 재언급하여, 논의의 초점을 이전의 화제로 되돌리는 기능을 한다.
- ⑤ ⑫의 '그러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였음을 전제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43. (가)의 대화를 바탕으로 (나)에 정보를 추가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항목에, '우리 학교 급식의 잔반 없는 날 캠페인'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② '정부 지원 정책' 항목에, '지효'가 웹에서 찾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추가한다.
- ③ 포스터 하단에, '사나'가 제안한 초록·파랑 계열 색상을 활용하여 캠페인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한다.
- ④ 포스터 제목 아래에, '지효'가 언급한 '탄소중립 실천의 달'을 명시하여 캠페인의 시의성을 부각하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⑤ 포스터의 여백에, '사나'가 제안했던 대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QR 코드를 추가한다.

[44-45] (가)는 도서관 열람실 이용 신청 앱 화면이고, (나)는 앱에 있는 이용자 게시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열람실 신청 안내

운영시간: 9:00~22:00
1일 최대 이용시간: 4시간
이용시간 연장: 최초 신청시간 종료 10분 전부터 가능
(1회 2시간 이내)

이용 가능 좌석
201, 202, 203, 210, 211, 212, 213 [클릭-더보기]

이용제한
-무단 퇴실 2회 시 3일간 신청 불가
-연장 후 퇴실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 퇴실로 간주

OO님의 이용 현황
신청좌석: 205번
신청시간: 17:00~19:00
연장 신청 가능 시간: 18:50 이후

(나)

이용자 게시판

정민
↳ 앱 덕분에 이용이 편리해졌어요. 다만, 연장 신청이 종료 10분전부터만 가능한 건 좀 불편하네요. 깜빡하면 못 눌러서 시간 종료 전에 나가야 했어요.

병현
↳ 저도요! 그리고 연장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무단 퇴실로 차리됐더라고요. 자동 퇴실 처리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해주면 좋겠어요.

정우
↳ 무단 퇴실 2회만으로 3일 제한은 좀 과한 듯해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3회까지 기준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강호
↳ 앱 좌석 배치도가 이미지로 나오면 좋겠어요. 좌석 더보기를 클릭해도 상세정보가 부족한 것도 아쉽구요.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용자는 최초 이용 시간 종료 10분 전에 4시간까지 이용 시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용자에게 열람실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개인의 실시간 이용 현황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 ③ 이용 가능 좌석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좌석의 실제 배치도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용 시간 연장 후 퇴실하지 않으면 무단 퇴실로 간주되지만, 신청 제한 폐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 ⑤ 이용 현황을 통해, 현재 이용자는 1일 최대 이용 시간인 4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45.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열람실 이용 방법 개선을 위해 회의 한 내용을 작성한 회의록이다. (나)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은? [3점]

<열람실 앱 개선 관련 회의록>

회의 일시: 2025년 7월 22일

인원: 열람실 앱 이용자 게시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논의

결정 사항:

1. 연장 신청 가능 시간 변경: 현행 '종료 10분 전'에서 '종료 30분 전부터'로 확대 조정.
2. 이용 제한 규정 완화: 현행 '무단 퇴실 2회 시 3일 제한'에서 '3회 시 3일 제한'으로 기준 변경.
3. 좌석 인내 방식 개선:
 - 가. 좌석 선택 화면에 이미지 형태의 '좌석 배치도' 추가.
 - 나. 개별 좌석 선택 시 '콘센트 유무' 등 상세 정보 표시 기능 추가.
4. 퇴실 알림 기능 추가: 자녀비율 시간 종료 5분 전에 푸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 신설.
5. 자동 퇴실 처리 기준 유지: 시스템 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은 유지하기로 함.
6. 공지: 위 변경 사항들을 앱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인내해줄 예정.

- ① 1번 결정 사항은 연장 신청 가능 시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정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군.
- ② 2번 결정 사항은 이용 제한 일수를 줄여달라는 '정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 사항을 완화한 것이군.
- ③ 3번 결정 사항은 좌석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강호'의 의견에 따라 시각 자료와 상세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군.
- ④ 4번과 5번 결정 사항은 자동 퇴실 기준이 엄격하다는 '병현'의 의견에 대해,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군.
- ⑤ 6번 결정 사항은 회의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다시 안내하기로 한 것으로, 앱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